

GM 드래프트의 날

By Choi Hoon < 38 >

자, 이런 자세입니다.

네.

또한 스윙이 매우 콤팩트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스윙은 크면 클수록 부정확해 지죠.

그렇게 여러모로 좋다면 많은 선수들이 이 타격폼을 애용할 것 같은데 이런 타격폼을 쓰는 선수가 선우영박에 없는건 역시 약점이 있기 때문이겠군요.

여기서 테이크백 없이 바로 스윙이 나와요. 어떻게요? 돌아나오지 않고 짧게 끊어서 나오는 만큼 방향이 공까지 가는 시간이 엄청 빠르겠죠?

그 절약된 시간 만큼 공을 더 오래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구종에 대한 대응이 좋아진다는 거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이 타격폼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바로 스윙에 힘을 실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테이크백이 없기 때문에 몸의 회전력을 빌리지 못하고 많은 부분 팔의 힘으로만 스윙해야 합니다.

아...

오로지 선우영박 같이 초인적인 팔힘을 가진 선수에게만 가능한 타격폼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타격폼을 살피면 기교파 투수에겐 강하고, 강속구 투수에겐 약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투수쪽이 유리한 것도 있고해서 내기를 제안한 거죠.

물론 뭔가 큰 게 걸려있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내기입니다.

제야무리 초인적인 팔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힘으로 밀어붙이는 유형의 투수에게는 약할 수밖에 없는 타격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허경영은 다른건 몰라도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 하나는 최고인 녀석이라서 말이죠.

자, 제가 내기를 제안한 이유를 말했으니 이제 김 단장님께서 휴가를 내서 변장까지 하고 여길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저희 스카우트팀 내부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래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 'GM 드래프트의 날'은 'sportsdonga.com' 에서 첫 회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Culture diary Book

생의 전환기 50대, 당신의 관절은 안녕하십니까?

●내 인생의 시간표 어깨통증. 맞나? 오십견 | 백창희 지음 | 북마크

우리나라 어깨질환 환자의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 진단 기술의 발달이나 건강에 대한 관심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인구의 고령화도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다. 어깨를 포함한 관절의 수명은 50년 남짓이다. 나이 오십이 되면 아프기 시작한다. 오십견이라는 어깨질환 명칭에서 보듯 50대는 대부분 사람에게 인생의 전환기이자 관절 등 몸의 건강상태를 살펴야 하는 터닝포인트다. 50세가 되면 인생을 돌아보듯 어깨통증이 찾아오는 시기에 앞으로 50년을 더 써야 할 어깨의 건강을 돌아보자는 의미로 책의 제목을 정했다. 스스로 오십견이라고 생각하는 환자들은 진단해보면 20%만이 오십견이고 나머지 80%는 힘줄에 염증이 생기거나 점액낭염 등의 다른 질환이라고 한다. 이는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운동제한까지 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저자는 상기시킨다. 현재 어깨환자의 90%가 40대라는 숫자가 보여주듯 나이를 먹으면 어깨가 아픈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30대 이상에서도 어깨질환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 50대 전후에서 아프기 시작하는 어깨통증을 소홀히 하면 심각한 어깨질환으로 발전한다는 점이다. 저자 백창희(사진) 원장은 사고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어깨질환은 생활습관에서 온다고 주장한다. 치료 후 재발을 막는 것 또한 생활습관이라고 했다. 그래서 스트레칭의 일반적인 원칙과 근육운동 방법 등을 꼼꼼하게 사진으로 보여주고 치료 후 재발을 강요한다. 평소 어깨관리를 위한 525운동, 주사와 운동치료 만으로 오십견 등의 어깨통증을 잡는 매직 테라피 매뉴얼은 의사인 저자의 현장 경험과 노력으로 만든 비수술 치료법이다.



명문장·명대사로 익히는 독창적인 영어학습서

●독보적 영어 책 | 이미도 지음 | 뉴

외화번역가 이미도 씨가 책을 냈다. 그는 1993년부터 무려 500편이 넘는 할리우드 영화를 번역한 외화 번역 전문가다. 그래서 영어를 잘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만들었던 영어 학습 책이라고 쉽게 생각하겠지만 착각이다. 저자는 그동안 자신의 영어 재능을 이용해 영어 학습 책을 여러 권 내렸지만 이 과정에서 “느끼고 깨닫고 다치면서 배운 게 있어서” 이번에는 전혀 다른 영어 책을 냈다. 그래서 책의 제목도 ‘독보적 영어 책’이다. 한마디로 영어의 명문장과 명대사를 문학적으로 재구성한 에세이집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절로 독서력과 창의력 영어 능력이 늘 수 있도록 저자가 그동안 읽고 쓰고 보며 쌓아온 영어의 세계를 담았다. 에필로그와 감사의 글까지 포함해 총 45쪽의 글이 들어 있다. 하나의 에세이를 읽을 때마다 인생의 통찰을 깨닫게 해주는 수많은 질문에 답이 되는 영어 명문장과 명대사가 곳곳에 들어 있다. 1부 읽는 재미(reading), 2부 보는 재미(watching), 3부 쌓는 재미(accumulation)로 나뉜다. 1부는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다가 만난 영어, 국문 영문 신문 속에서 만난 영어, 페이스북을 하다가 혹은 인터넷 서핑을 통해 만난 영어를 소재로 저자가 느끼고 깨닫고 배운 것을 구성했다. 2부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와 유튜브의 동영상에서 만나는 대사와 영어, CBS CNN 등 방송에서 만날 수 있는 영어를 소재로 저자가 느끼고 깨닫고 배운 것을 글로 구성했다. 3부는 세계적인 대문호의 명문장, 세계적인 명사의 명문장 등이 들어 있다. 이 가운데 몇 구절만 외워 두면 나중에 외국인을 만났을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천재적인 묘수와 승부...강철수화백의 바둑만화

●무한묘수 1·2 | 강철수 저 | 나남

‘발바리의 추억’, ‘돈아 돈아’ 등의 작품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강철수 화백의 바둑만화. 저자는 열렬한 바둑 애호가로 아마5단의 기력을 지녔으며 TV바둑 해설자로도 활약한 바 있다. ‘바둑의 심오한 깊이와 프로기사들의 고뇌를 만화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시대 유일한 작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 백수 발바리는 학창시절에 알았던 여인 박으로부터 5세 여자아이 미미를 소개받는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미미가 이창호 짝치는 바둑천재. 발바리와 미미는 내기바둑을 통해 돈을 벌기 시작하고 점차 강한 고수들이 등장하면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에피소드가 전개된다. 해학적인 발바리의 유머감각, 5세 미미의 천재적인 묘수, 삶을 바둑에 빚낸 날카로운 묘사가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든다. 발바리의 성장과 미미의 숨겨진 과거, 갈수록 긴장감이 높아지는 승부의 세계가 한 판의 바둑처럼 펼쳐진다. 바둑을 모르는 독자들도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다. 바둑을 소재로 빌린 삶과 인생의 이야기다.



뉴스디자인 | 유진한 기자 haja1787@donga.com

Biz gallery

광동제약, 비만치료제 콘트라브 발매식

광동제약은 경기도 용인시의 금호아시아나 인제 개발원에서 2일부터 약국에 출시되는 비만치료제 콘트라브 발매식을 개최했다. 발매식에는 최성원 광동제약 대표이사과 에지칼본부 임직원 25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광동제약은 미국 바이오 제약기업 오렉 시젠 테라퓨틱스와 콘트라브의 국내 독점 판매계약을 맺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체중 또는 비만 성인환자의 체중조절에 단일요법으로 사용되는 신약으로 최근 허가받았다. 콘트라브는 2015년 미국의 비만신약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해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효능이 입증됐다. 403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콘트라브의 56주간의 임상연구에서 5% 이상 체중 감량자는 60~80%로 나타났다. 이상 지질혈증 환자의 혈중 중성지방 감소와 HDL-콜레스테롤 증가, 제2형 당뇨병환자의 당대사도 개선시키는 전문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을 통해 살 수 있다.

H+양지병원, 첨단 의료장비 가동식

에이지플러스(H+) 양지병원이 1일 최첨단 의료장비인 3.0T MRI 및 디지털혈관조영기 3호기 도입 기념 ‘해피 MRI & 디지털혈관조영기 가동식’ (사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 병원 김철수 이사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이성심 관악구의회의장, 황규의 지멘스 부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지멘스사의 3.0T MRI는 국내 최고 사양의 다채널 코일과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보다 정확한 검사, 검사 시간 단축, 정밀 영상 등 기존 1.5T MRI의 단점이 보완된 최첨단 장비로 고화질 영상 재현, 고정밀

혈관 영상 촬영 등이 최대 장점이다. 양지병원 김상일 병원장은 “이번 장비의 도입으로 영상의학과를 중심으로 뇌신경센터, 심혈관센터의 진단과 치료의 정확도를 한층 더 고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피지오겔, 2년 연속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스킨케어브랜드 ‘피지오겔’이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2016 대한민국소비자대상’에서 소비자브랜드 스킨케어부문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2016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입법, 소비자행정, 소비자문화진흥, 소비자브랜드, 소비자경영, 소비자권익증진 등 6개 부문에 대해 우수성을 평가해 선정된다. 피지오겔 대표제품인 피지오겔 데일리모이스처 테라피(DMT) 페이스크림은 피부의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는 지질층과 유사한 성분으로 구성된 피부속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고,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어 생기는 피부

를 유지시켜주는 보습크림으로 평가 받았다.

프롬에스티, 트레이너 키트 35% 할인

신개념 피부운동기 프롬에스티가 6월 한 달간 브랜드 1주년 기념 고객 감사 이벤트(사진)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에선 프롬에스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프롬에스티 진공 스킨 트레이너 키트’를 2천 세트 한정으로 35% 할인가에 판매한다. 또한 가격적인 할인 혜택과 함께 고급 비치타월, 마사지크림, 스타벅스 기프트콘으로 구성된 6만 원 상당의 푸짐한 사은품도 제공한다. 프롬에스티는 초저진공을 이용해 피부 속 진자 피부인 진피층까지 운동시켜 피부의 자생력과 탄력을 되찾게 도와주는 피부 운동기다. 지난해 출시된 이후 매월 평균 300% 이상의 매출 성장세를 보이며 소비

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아이오펜, ‘UV 쉴드 선 센서티브 크림’ 출시

아이오펜이 자극이 적어 민감한 피부에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자외선 차단제 ‘UV 쉴드 선 센서티브 크림’ (사진)을 출시한다. 이 제품은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자외선을 차단하는 무기 자외선 차단제로, 9가지 성분(멜크, 파라벤, 향료, 타르색소, 동물성원료, 광물성오일, 이미다졸리디닐우레아, 폴리아크릴아마이드, 트리에탄올아민)을 배제했으며, 피부과 테스트, 민감성 테스트, 안자극 대체 테스트, 하이포알러제닉 테스트까지 총 4가지 실험으로 검증 받았다. 또한 입자를 미립자로 분산하는 기술을 적용해 저자극성 무기 자외선 차단제의 약점으로 여겨졌던 뻑뻑한 사용감과 발림성을 크게 개선해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다.

